

장백산천지

제 232 호

2014 년 6 월 10 일

화요일

뉴욕 시대광장에서 련공하고 있는 서양 파룬궁수련생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다

(망후이기자 탕슈밍 더샹 미국 뉴욕에서 보도) 2014년 5월 15일 오전, '제 15회 세계 대법의 날'을 경축하는 활동 기간, 많은 국가에서 온 서양 파룬궁수련생들은 미국 뉴욕의 제일 번화한 시대광장에서 단체련공을 진행했다. 중국 전통적인 수련공법, 조용한 서양 수련생, 상서로운(祥和) 음악, 밝은 황금색 련공복과 편안한 분위기는 주변의 시끄러운 환경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형 전자화면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매우 기묘한 경관을 이루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북미 많은 도시에서 파룬따파를 표창(褒獎)하다.

5월 13일은 바로 '세계法輪大法(파룬따파)의 날'이며 또 파룬궁 창시인 리홍쯔(李洪志)선생님의 탄신 일이기도 하다. 2014년 5월 13일, 파룬따파가 세계에 널리 전해진 22주년 기념일을 맞으면서 북미 여러 곳에서 표창장을 발표하여 2014년 5월 13일을 '眞、善、忍(쩐, 션, 런)을 찬송하는 파룬따파



2014년 5월 15일, 서양 파룬궁수련생들이 뉴욕시대광장에서 단체련공을 하다.

의 날'로 선포했다. 레하면 미시간주 파룬따파 학회는 미국 미시간주 상하원 정계요인이 보낸 9편의 세계 파룬따파 날을 삼가 축원하는 특별 표창 감사 편지를 받았다. 간단한 표창과는 다르게 매 감사 편지에는 파룬따파가 세계에 흥전 된 정황을 상세히 소개한 뒤, 수많은 민중에게 더욱 건강하고, 더욱 높은 도덕적인 생활을 가져다주

었다고 찬양했다. 또 파룬궁수련생들이 현지 지역사회에서 흥법하는 긍정적인 의미와 리홍쯔 대사가 전한 파룬궁은 이미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였으며, 바로 중국을 변화시키고 있고,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찬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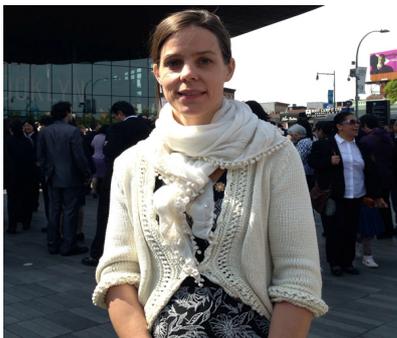
캐나다 국회의원: 파룬궁단체에서 평화롭게 불의와 박해에 대응한 것을 찬양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요크지역 국회의원 마크 애들러는 축하편지에서 "나는 캐나다 정부를 대표해 우리가 파룬궁에 대해 줄곧 지지했음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이 정신 수련이 반영해 낸 것은 관용과 조화의 가치이며 캐나다처럼 자유, 민주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국가의 기본 준칙이기도 하다. 나는 파룬궁단체가 평화로운 방식으로 불공정과 박해를 대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라고 썼다.◇

서양 파룬궁수련생들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



폴란드에서 온 파룬궁 수련생 Jas'



네덜란드 파룬궁수련생 Marlene

올해 5월 13일은 제 15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다. 전 세계 부동한 지구에서 온 8천여 명의 파룬따파 수련생들이 뉴욕에 모여 2014년 뉴욕 국제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에 참석했다. 유럽에서 온 파룬궁수련생들에게는 이날이 기쁨과 감사의 날이며, 진상을 전하는 날이었다.

폴란드에서 온 예술사 연구와 창작에 종사하는 Jas' Motyka 선생은 파룬궁을 수련한지 7년이 되었다. 이번은 제 4차로 뉴욕 국제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에 참석했다. 그는 "교류회 전 우리는 (연합광장)에서 단체련공을 했는데 파룬궁이 중국에서 무고한 박해를 받는다는 진상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고, 박해가 하루 빨리 끝날 것을 희

망한다."고 말했다.

'2014년 뉴욕 파룬따파 수련심득교류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다리는 행렬에는 체코에서 온 Ingrid Longaverova와 Martina 두 자매가 있었다. 동생 Ingrid는 17세 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해 이미 8년간 수련했다, 그는 대학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뉴욕에서 기자로 있다. Ingrid는 어떠한 언어로도 사부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의 마음속 제일 깊은 곳에서 부터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너무나 행운입니다. 자신이 능히 파룬따파 제자로 되어 대법이 널리 전파되는 중요한 역사시기를 견증할 수 있다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체코에서 온 Ingrid Longaverova(좌)와 언니 Martina는 함께 뉴욕법회에 참석하다



이란에서 온 Fariborz Tavaneai와 딸 Ghazal가 함께 뉴욕법회에 참석하다



영국 파룬궁수련 Joanna Conway 세 식구

시정공정사로서 기업도 경영하는 이란수련생 Fariborz Tavaneai는 이번에 4 번째로 뉴욕 심득교류회에 참석했는데 법회가 열리기 직전에야 미국여권을 발급받았다. Fariborz Tavaneai는 자신은 20여년간 정신의 길(精神道路)을 애타게 찾아다녔으며 많은 책을 보았고, 많은 수련방법도 체험해 보았으며 여러 가지 유가(瑜伽)도 연습했었지만 파룬따파를 만나고서야 찾던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그는 세계에서 제일 행운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 파룬따파가 그에게 준 변화를 그는 “저는 생명의 의의를 찾았어요, 저의 도덕은 승화되었어요. 저 자신에 대해 가족과 동료는 모두 제가 더욱 좋은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해요.”라고 말했다.

이태리에서 온 Marco Tistarelli는 한 가족호텔의 경영자이다. 2006년 호주 거리에서 파룬궁을 전파하는 수련생을 만나서 수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은 그가 두 번째로 참석하는 뉴욕법회이다.

네덜란드에서 온 Marlene•Worth 여사는 2007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한 두 아이의 어머니이다. 네덜란드 성급 정부 환경보호와 조경관리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두 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지로 특별히 청가를 맡고 법회에 참석했다. 그는 여러 각국에서 모인 파룬궁수련생들과 함께 수련 교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또 ‘세계 파룬따파의 날’에 올수 있어 대단이 기쁘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대법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수련심득을 교류하고 함께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저는 4살과 2살 되는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돌



이태리에서 온 Marco Tistarelli(좌2)등 파룬궁수련생들은 아주 기쁘게 뉴욕법회에 참석하다.

아간 후 그들은 제가 더욱 좋은 어머니가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 합니다.”라고 말했다.

영국 파룬궁수련생 Joanna Conway와 남편은 22개월이 된 아들과 함께 비행기로 런던에서 뉴욕으로 날아와 ‘세계 파룬따파의 날’ 경축 활동에 참가하고 교류회에도 참석했다. 그녀는 ‘真、善、忍(眞, 善, 忍)’ 원칙으로 자신을 더욱 좋은 사람으로 되게 한 사부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녀는 “대법을 수련한 후 저는 더욱 온화하고 더욱 인내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때로는 가정생활에서 남편에 대해 인내심이 부족할 때가 있지만 노력하여 고치고 있습니다. 저는 더욱 노력하여 ‘真、善、忍(眞, 善, 忍)’에 동화 되고, 자신의 약점을 억제하고 더욱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연변박해소식

길림성 돈화시 파룬궁수련생 판이원과 왕웨이신, 마구이민과 위안리모녀 중형판결을 받다

돈화시 파룬궁수련생 판이원(潘義文)과 왕웨이신(王悅欣)부부는 각각 7년과 5년의 불법 중형판결을 받았고, 마구이민(馬桂敏)과 위안리(袁莉)모녀도 각각 3년과 4년의 불법 중형판결을 받았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판이원은 공주령 감옥으로 보내졌고, 기타 3명 너 파룬궁수련생들은 길림성 여자 감옥으로 보내졌다. 상세한 박해 소식을 보충해 주기를 바란다. 돈화시공안국전화: 0433-6222737

연길 리구이메이(李桂梅)와 동생은 연길시 610, 국보대대의 소란(騷擾)을 받다

금년 1월 9일, 리구이메이는 연길 흥안 시장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악인의 고발로 잠복하고 있던 연길시 신흥파출소 3명의 남성 경찰과 2명의 여성 경찰에 납치되어 15일 동안 불법적인 구류를 당했다.

그 후 1월 9일부터 4월말 기간에 연길시 610, 국보대대는 리구이메이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녀 동생을 협박해 보증금 명의로 5천원을 갈취하면서 ‘재산으로 보증’하는 ‘재

보(財保)’라고 했다. 그러면서 리구이메이가 1년 내에 다시 불들리지 않으면 그 돈을 돌려준다고 했다. 리구이메이는 구류소에서 집에 돌아온 후에야 이 일을 알게 되었다.

그런 후에도 그들은 리구이메이를 교란할 목적으로 리구이메이의 동생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리구이메이를 국보대대에 한번 왔다가라고 했다. 오지 않으면 ‘도주 범’으로 처리한다고 위협했지만 리구이메이는 모

두 거절했다.

그 외 리구이메이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동생을 ‘보증인’으로 지정해 ‘박해서’에 손도장을 찍게 했고, 또 리구이메이를 대신해 손도장을 찍게 했다. 악인은 또 ‘보석치료’라는 명으로 계속 리구이메이를 박해하면서 무슨 ‘집행유예’라고 한다. 리구이메이는 법률을 준수하는 공민이며, 좋은 사람으로 되려는 좋은 공민이다.